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겨워하던 어느 날 루버스 지혜님으로부터 티켓을 양도하시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고 모든 약속을 뒤로 밀고 제작발표회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지혜님….

정말 감사해요…저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루버스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 전 인터뷰한 내용은 모두 생략할게요. 워낙 기사들이 방대하고 모두 읽으셨을 것 같아서요. 전 느낌만….

2012. 8. 13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제작발표회가 있는 날

압구정 CGV 를 들어서는 순간 나를 반긴 것은 입구에 스탠드형 대형포스터



티켓을 받기 위해 지혜님과 마끼꼬님과 조우하여 티켓을 드디어 받았다. 수많은 카메라맨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운영진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고즈넉한 곳에는 오늘 병헌님의 두손에 안겨질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부채도 보인다…설레인다

앗! 운영진님들 뒤에 지혜님의 모습도 보여요.

더위를 버틸 시원한 아이스 커피한잔과 떡하나를 받아들고 티켓에 써있는 자리 2층으로 갔다.

Best 블로거인 지혜님의 자리는 SweetBox…즉 2층에 A 1, 2 열 2인용 좌석….

올라가니 더 좋더라구요….

1층은 카메라가 높아서 보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2층은 거리는 멀지만 훤히 보이네요?

제작발표회의 자리는 첫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조용하고 긴장된 때로는 엄숙하다는 표현도 어울릴 것 같았다. 울 병헌님도 매우 긴장하겠지...



병헌님의 명성에 맞는 조용하면서도 우아한 한방 힘이 되어 드릴 것은 윤숙언니가 준비한 피켓! 시끄럽지 않고 눈으로 보고 말하는 묵묵한 응원메시지

다행히 언니의 티켓은 1 층이고, 난 2 층이었기에 피켓 하나씩 나누어 들고 “오빠! 힘내세요~~~우리가 있잖아요.”(제작발표회의 분위기는 엄숙했기에 겉은 말끔한 지성인이나 속으로 멈출수 없는 울부짖음의 포효 그 자체였으리라.)

그리고 오빠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레이저를 한참동안 쏘아주시더니 손까지 흔들어 주십니다.

아싸~~~~ 피켓 내려놓고 사진찍는데 그만 ㅠㅠㅠ

오빠랑 눈만 마주치면 발명되는 수전증...ㅠㅠㅠ 온몸이 달달달 떨린다. 류승용씨가 사진촬영할 때 막간을 이용해 손흔들어 주셨는데...

얼씨구!!! 김정희 그 때 사진 찍다가 이런 사진이 되어버렸다.



오늘의 사회는 손범수씨...손범수씨가 영화관 입구에서부터 봤는데...내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머리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했다.

대형스크린 앞에 준비된 세트 그 앞은 셀수없을만큼의 많은 카메라들로 가득했구요.



병헌오빠 에피소드 중에 부안 회집에서 술한잔씩 하면서 류승용씨와 친구가 되어서 말농기로 했는데 다음날 아침 류승용씨가 “병헌아! 잘 잤니?”하고 물었더니 “(머뭇머뭇하면서) 네. 승~용~아.”하셨네요.

그런데...손범수씨가 웃으면서 “참 재미있네요...”해야 하는데 아나운서 같은 멘트로 “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라고 말해서 그게 더 웃겨다는...



손범수씨의 사회로 화면에서 비추어지는 주인공 순으로 입장을 하셨어요...병헌님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채로 가득하더이다. 앓기 직전의 모습인데 좀 어정쩡...찍사의 실력이 완전 제로 병헌님, 류승용씨, 한효주양, 김인권씨 병헌님 등장 이후 전 줄곧 피켓만 들고 있었기에 다른 분 사진은 없고요...ㅎㅎ

아직 오픈되지 않은 광해 동영상, 출연자들간의 왕게임ㅋㅋㅋㅋ(익선관을 가진 사람이 순서대로 왕이 되고 왕이 된 사람이 지목하여 질문하면 아뢰옵기는 황궁하오나...하면서 말하는 게임-별거 아니었지만 나두 하고 싶었다. ㅋㅋㅋ 병헌님!^^ 아뢰옵기는 황궁하오나~~~제가 상처가 많은 아낙네인데 루버스에 있어야 할까요? 말까요? 하믄서...푸하하하)

비하인드 스토리, 기자들과의 인터뷰, 끝으로 배우들 개인 사진, 단체사진 순이었다.

시종일관 손범수씨의 아나운서적인 말투 “이제부터는 개인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이병헌씨...나와주세요.” 오빠가 멋지게 걸어나오시더니...푸하하하하 ㅋㅋㅋㅋㅋ 저 사람을 어찌 미워할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순간 순간 보여주는 재치는 나의 애간장을 녹여주신다. 40 대에 웬 섹쉬포~~~즈에 귀여움까지? 음... 아마도 광해에서 보여주었던 하선이의 역할이 아직 몸에 베여있던지...혹은 기양 앞으로도 쭉~~~욱 사랑받고 살아가라고...그것도 아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유승용씨는 그런 오빠가 부러웠는지 나두 한번 왕좌에 앉아 보겠다고 하더니...필이 안나는 것을 바로 인지하시고 곧바로 마루바닥에 앉아주신다. ㅋㅋㅋ  
그래두 유승용씨 나름 남성적인 매력이 많더라구요.



다음은 천상 여성스러움의 한효주양...

중전의 컨셉인지 생각보다 말수도 적고 자기 주장도 별로 없어보였어요...여배우라 그런지 아저씨들 눈치를 보면서 인터뷰했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오빠랑 사진찍을 때 첫번째처럼 팔짱도 안껴서 매우 어색했습니다.

2 층에서 개미만한 목소리로 팔짱 좀 껴요~~~했는데...소머즈의 귀인가? 팔짱끼더라구요...

아마 카메라맨들의 요청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병헌님은 정말 옆에 누가 있던지...그냥 화보예요...멋져라~~~



전 솔직히 이제는 병헌님의 출연하는 영화를 평가하고 후기 이런 것 잘 못하는 팬이 되었어요.  
그저 병헌님이기에 병헌님이까 병헌님이 하는거니까 제가 루버스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병. 헌.  
오직 한사람이거든요. 무조건적인 팬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멋진 날을 보내게 해준 지혜님...저 약속 지켰죠?  
앞으로도 올 병헌님 더욱 더 아끼고 사랑하기로 해요~~~어느곳에 있던지...  
광해!!! 아싸 대박!!!